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2년 7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9장 ‘부드러운 주의 손이’ 1,2절을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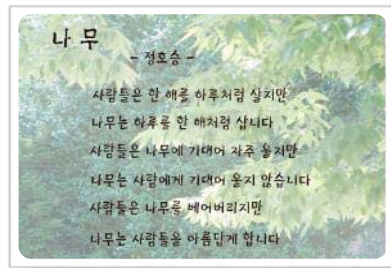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하느님의 말씀이신 주님, 저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 오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소서.
-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은총 안에서 성장하게 하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8장 5절~8절, 11절~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 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 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백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하고 외치셨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기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 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 없을 때는

- 1) 나는 어디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여겨집니까?
- 2) 신앙의 자세가 나태해진다고 여겨질 때가 언제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 3) 하느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를 바란다면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 주제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셨고 온 삶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그 주제가 바로 ‘하느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통

치하시는 왕국, 하느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상태, 하느님의 현존 그 자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는 새로운 공동체로 그것을 위해 투신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열매 맺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는 것이 편안해지면 기도 생활이 덤덤해집니다. 삶의 아쉬움이 줄어들면 ‘성당 가는 것’도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자세가 나태해지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러한 때 ‘감사의 신앙’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 탓입니다.

물살이 빠른 강을 건널 때는 나룻배에 짐을 많이 싣습니다. 때로는 ‘큰 돌’을 싣기도 합니다. 물결에 휩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짐’을 무겁게 하거나 ‘시련의 바위’를 싣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것이지요. 불평 없이 받아들일 때 말씀은 뿌리를 내립니다.

사람들은 ‘삶의 짐’을 가볍게 하려고 재미있는 것만 찾습니다. ‘득 되는 것’만 손대려 합니다. 모르는 새 걸모습만 쫓고 있는 것이지요.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진 씨앗과 진배없습니다. 알찬 열매는 뿌리가 튼튼해야 열립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열매를 결정짓습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통을 그들은 참아 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련을 그들은 극복해 냈습니다. 말씀이 뿌리내리도록 ‘좋은 땅’을 만든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은 여건이 형성되면 언제든 피어납니다. 노력 없는 곳에는 은총도 없는 법입니다.

*산다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돈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미소는 전기보다 싸지만 전기만큼의 빛을 준다.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함시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함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49번 ‘용기장이’ 1,2절을 부릅시다.

궁금
했어요

교중(敎中) 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본당 사목자가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신자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봉헌하는 미사입니다. 1985년 한국 주교 회의가 의무화하였고 교황청의 인가를 받아 대부분의 본당에서 주일 낮미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께서 ‘본당의 모든 신자들’을 주님께 봉헌하는 미사이기에 개인적인 미사 예물 없이 집전합니다. 온 교우를 주님께 봉헌하는 사제의 감사와 기쁨을 엿보는 때이며 본당 신부님의 사랑을 얻는 미사이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교류를 확인하는 시간이지요. 본당 사제가 본당 신자들을 위해서 바쳐 올리는 미사인 만큼, 본당 신부님의 정성과 사랑이 흠뻑 담긴 미사라고 설명해드리고 싶군요. 주님의 뜻으로 한 공동체를 이룬 본당 가족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한 빵을 쪼개어 함께 나누며 한 공동체임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체험은 교중미사의 가장 큰 은혜이며 신앙성숙을 위한 토대임을 말씀드립니다.



(「소곤소곤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장재봉 신부)

신접살림, 그 설레이는 시작

- 명서동성당 대원 2구역 -

“아이고~ 마티아!”

명서동성당 대원 2구역 모임이 있는 날, 가두노 형제님 댁 현관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시길래 저렇듯 크고 반가운 소리로 부르시나 싶어 고개를 돌렸더니 손에 장난감을 쥔 꼬마총각이 장난끼 가득한 미소로 들어섭니다. 보나 반장님을 따라 나선 아들 마티아는 오늘 모임의 최연소 참석자. 가두노 형제님은 그런 마티아를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를 반기듯 맞이해주셨습니다.

“제가 명서동성당에서 인물 좋기로 소문난 대원 2구역 남성 구역장입니다.”라며 재치 있게 소개를 해주신 가두노 형제님은 반원들이 모이시자, “이 자매님들이 모두 모두 미스 광주, 부산, 김천, 서울, 마산 출신이십니다. 모두 미인들만 모이셨지요.”라며 모임의 분위기를 한층 돋구어 주셨습니다.



몇 해 전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명서동성당 대원 2구역은 두 개 반 총 6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느 도시 본당이 그렇듯 맛벌이 세대가 많고 인근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하시지요. 때문에 반은 나누어져

있지만 1, 2반이 함께 반모임을 하고 계시고 분기에 한 번 정도 있는 구역미사에 참석하셔서 서로 얼굴을 뵈게 된다고 하십니다.

복음에 비추어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말씀 나눔의 시간, 다양한 마음 살이가 펼쳐집니다. 사랑 없는 교만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겸손의 기도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걸린 오랜 시간들, 하느님 앞에서 인간은 하나의 옷걸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잊

지 말아야겠다는 다짐, 만배의 시간을 하느님께 바치는 일의 어려움……. 세상을 살아가며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의 번민과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새롭게 다시 서려는 다짐이 읽어졌지요.

다가오는 주일 전례봉사자를 정한 뒤 활동 부분에 관한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구역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본당 전례봉사 외에 구역차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활동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하시며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 나갈지 천천히 의견을 모아 나가자고 서로를 격려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 같은 살가움과 편안함으로 반원들을 대해주시는 여성 구역장님과 어린 마티아도 귀한 손님 모시듯 반가이 맞이해주시던 가두노 남성 구역장님, 모임 내내 모임기록지 작성하시라, 어른들 틈에서 무료해하는 꼬마 마티아의 낙서놀이 돌보시라 분주하시던 보나 반장님, 그분들의 노고를 알기에 되도록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 하신다고 반원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대원 2구역의 떠오르는 샛별, 가장 젊으신 스콜라스티카 자매님은 신앙생활에서 겪은 마음의 부담을 이웃에 계신 글라라 자매님께서 잘 헤아려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전하셨습니다. 아내 심포로사 자매님과 함께 처음으로 모임에 참석하셨다는 신 영세자 유스티노 형제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니며 쑥스러운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구역이 생긴 지 이제 3년 째, 신접살림이라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지금처럼 서로 이끌어주고 마음 자리를 헤아려가며 서로의 노고를 잊지 않는 감사함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시작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 나가, 풍요롭고 따뜻한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대원 2구역이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명서동성당 대원 2구역 반원들〉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복음...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